자치단체장들 일탈·탈법 위험 수위

창원시장·제주지사 주민 혈세로 부인과 해외출장
나주시 공무원 2명 1년 넘게 시장 부인 수행

지방권력의 꼭지점에 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탈법이 심각하다. 주민이 낸 혈세로 부인과 동반 출장에 나선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단체장은 부인 소유의 밭에 특혜를 행사해 낙마 위기에 놓였다. 한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에 쓰라는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부인 식당에서 간담회를 19차례나 열어 400여만원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희롱과 직권남용 등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의원도 적지않다.

◇ **단체장 부인 깍듯한 의전에 예산도 '펑펑'**=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관광 벤치마킹과 투자 유치 명목으로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에 출장을 가면서 부인과 동행했다. 문제는 창원시가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9만원 전액을 지원한 점이다.

안 시장 역시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등 1100만원을 썼다. 안 시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출장 때도 부인과 동행했고, 당시 항공료 240만원 역시 시 예산으로 지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안 시장은 두 번의 해외출장에서 부인에게 사용된 예산 전액을 시에 반환했다.

지난해 초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올랐다. 원 지사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부 동반으로 일본 관동·관서 지역 신년회와 성인식을 다녀왔다. 당시 부인의 해외경비 123만8000원을 제주도 예산으로 썼다.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행자부 조사결과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직원 2명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강 시장의 부인 수행을 맡았다.

나주시는 "시장 부인이 투병 중이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무원을 운전기사 겸 수행원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군청 비용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괴산군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업무추진비로 부인 식당서 간담회**=지방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더욱 심각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14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6개월간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김봉회(증평) 부의장은 2014년과 지난해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었다. 지출된 식비는 총 455만9000원에 달했다.

각종 비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지방의원도 부지기수다. 윤범로 충북 충주시의장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이종행기자 golee@

국회의원 당선인 8명 초청
광주시, 10일 시정보고회

광주시와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첫 시정현안 보고회를 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을 초청해 시정 현안을 설명한다.

시는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미래 먹거리 산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안보고보다는 당선축하와 상견례 성격이 짙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회에서는 오는 18일 제36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5·18 관계자 등이 염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리지만 시간적 제약 등으로 밀도 있는 대화는 어려워 보인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 선물

4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22회 광주서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임우진 서구청장과 송기석 국회의원 당선자 등 내빈들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 상자를 포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경상 경비, 본 예산 편성않고 추경 편성 되풀이

행사성 경비·전년도 추경 미집행 사업도 많아 … 시의회 지적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정현)가 오는 9일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광주시의 경상적 경비의 관행적 추경 편성, 행사성 경비 증가 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도 추경편성 예산 중 다수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가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경상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일부를 추경에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 관리비 등 편성목상 일반운영비의 경우 이번 추경에 본 예산 27억원보다 13억2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같은 규모는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각종 축제와 1회성 행사 등이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 추경에만 43건에 23억8000만원이나 편성됐다. 특히 한번 시작한 행사와 축제는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즉흥적으로 결정될 경우 졸속 추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추경편성 예산 중 다수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제1회 추경반영 사업 301건의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추경에서 반영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전체 예산 중 91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3건, 15건은 예산집행률이 10% 이하였다.

이정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규모나 시행 시기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정 시기에 편성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를 따져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나섰다

TF구성… 부지 2곳 선정 추천

광주시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나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명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대상 부지선정 TF'를 꾸린 뒤 광주 5개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지를 제안받아 2곳을 선정해 문화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문화부가 3일 전국 시·도별로 최대 두 곳까지 후보지 신청을 하되, 오는 25일까지 건립 부지를 공모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제시한 건립부지 면적은 1만5000㎡다.

TF는 광주 5개 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의 적정성과 광주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립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TF도 독자적으로 해당 부지를 추천한다.

국립한국 문학관 후보지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문학·출판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최적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지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문화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 문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문학관이자 문학유산 및 원본자료의 체계적 수집·복원, 보존·아카이브, 연구·전시,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을 끝내고 이듬해 개관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개소

나주 농업기술원에

전남도는 귀농, 귀어, 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나주 농업기술원에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일 현판식을 했다.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총 5명으로 운영된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향우회·기관·기업 방문 설명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예비 귀농, 귀어, 귀촌인에게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안내도 한다.

귀농·귀촌인이 정착 초기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과 농지 구입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누리집에 게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귀농어·귀촌인 유치부터 상담, 교육, 창업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시군 사이의 통로 역할에 충실하면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형 발사체 75t급 액체엔진 첫 연소시험 성공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한국형 발사체(KSLV-2)의 1단과 2단에 들어갈 75t급 액체엔진이 첫 번째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75t 엔진의 연소시험을 1.5초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발사할 계획인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이다. 제일 아래 1단은 75t 엔진 4개를 묶은 것이고 이 위에 75t 액체엔진 1개를 올린 것이 2단이다. 3단에는 7t급 액체엔진 1개가 들어간다.

/박기웅기자 pboxer@